

# 검증된 혁신 전도사... '車 제조'서 '미래 모빌리티' 무한도전

글로벌 위기때도 혁신 정면돌파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진두지휘 수소전기·자율주행차 집중 투자 미래차, 미래분야 인재 영입 엑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시대가 14일 본격 개막했다.

정의선 회장은 2009년 현대차로 자리를 옮겨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5위 완성차업체 성장에 기여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당시 미국 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럽 재정위기의 파고에 맞서 해외현장을 발로 뛰며 시장을 직접 파악하고 임직원들과 대응전략 논의에 머리를 맞대고 팔을 걷어붙였다.

공격적인 경영으로 미국 금융위기를 기회로 전환, 현대차의 미국 내 위상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유럽 재정위기에도 정면돌파와 발 빠른 대응으로 현지 점유율을 대폭 신장시켰다.

정의선 회장은 2015년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을 진두 지휘했다. 제네시스 론칭은 지난 1967년 창립 이래 대중차 브랜드로 성장한 현대차의 고급차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으로 글로벌 자동차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오른쪽)과 미국 에너지부 마크 메네제스 차관이 미국 에너지부 청사 앞에 전시된 수소전기차 넥소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의선 회장은 브랜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외부 인사 영입과 조직 개편까지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주도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제네시스 미국 진출 후 처음 고객들에게 평가받은 JD파워의 '2017 신차품질조사(IQS)'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1위에 오른 후 2020년까지 4년 연속 최고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브랜드 순위

에서도 1위에 오르며 독일과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가 양분해온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끌었다.

또한 현대차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고성능 브랜드N과 모터스포츠 진출도 정의선 회장이 선택했다. 현대차는 201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고성능N 개발 계획을 밝혔으며, 첫 모델인 'i30N'과 'i30 패스트백'을 유럽에서 2017년 첫 공개했다.

정의선 회장은 N모델 개발을 위해 BMW에서 고성능 모델 'M'을 연구했던 알버트 비어만을 직접 영입하고, 남양연구소와 유럽연구소에 고성능차 개발 전담부서를 출범시켰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재임 기간 미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제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미래 분야 인재 영입 등에 직접 나섰다. 특히 기존 독자 연구 개발에서 이종산업은 물론 스타트업, 학계와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미래 기술 개발 방향을 전환했다.

정의선 회장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월 세계 톱티어 기술력을 보유한 '애티브(Aptiv)'와 합작해 자율

주행 모빌리티 기업 '모셔널(Motiona 1)'을 설립했다. 완성차 메이커 및 자율주행 기업들과의 단순 협업 틀을 넘어선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결정은 최적의 공동 개발 방식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과 상용화 일정을 단축하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미래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시장 확대 및 수소경제 구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수소연료전지 시장 확대를 비롯해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이어받아, 수소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의 시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올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트럭 양산에 성공하고, 유럽 수출을 시작했다. 2013년 승용에서의 양산 체제 구축에 이은 두번째 쾌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세계 5위 일군 '승부사' 정몽구, 아름다운 퇴진

미래 패러다임 변화 지속 주된 결단력 가진 정의선에 큰 신뢰

현대·기아자동차를 세계 5위 자동차 그룹으로 키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0년간 지켜온 그룹 수장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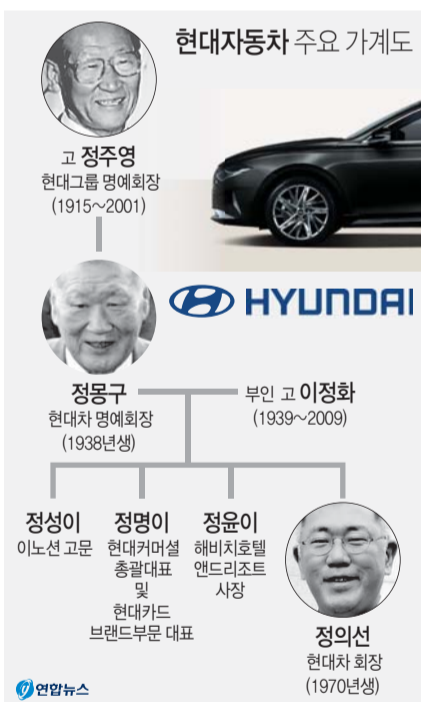
1999년 현대차 이사회 의장에 오른 지 21년 만이자, 2000년 '왕자의 난' 이후 현대차그룹으로 흡수되기에 나선 지 20년 만에 'MK 시대'가 막을 내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18년 9월부터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으로서 그룹 경영을 총괄해왔다. 지난 2년여간 그룹의 미래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정의선 회장 취임은 예견됐다.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사회와 일상의 급격한 변화에서 글로벌 경제와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위기감은 상당하다. 특히 '언택트'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모빌리티 전반에 걸쳐 기존의 미래 예측을 점검하고 정밀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격변기에 정몽구 명예회장은 정의선 회장 체제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정몽구 회장은 꾸준히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조응하는 그룹의 변화를 주문해 왔으며, 전략적 결단과 개방적 협력 등을 통해 그룹의 미래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에 큰 신뢰를 보여왔다. 정몽구 회장은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해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변에 피력해 왔다.



정몽구 회장은 최근 정의선 수석부회장에게 회장직을 맡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혁신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가족들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정몽구 명예회장은 세계 자동차산업 최고의 권위에 빛나는 '자동차 명예의 전당' 현역 대상으로 선정됐다. 1939년 설립된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은 세계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바탕으로 자동차산업과 모빌리티 발전에 중대한 역할과 기여를 한 인물을 '명예의 전당'에 현역한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01년 '자동차 명예의 전당'으로부터 '자동차산업 공헌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0년 '자동차 명예의 전당' 현역으로 다시 한번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의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양성운 기자

WeConnectScience
LG 화학

## 착한 코발트, 아동 인권을 지키다

LG화학은 이동노동력 착취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광물 사용에 앞장섭니다

아동 노동 / 인권 침해 차단에 앞장서는 LG화학 배터리 사업